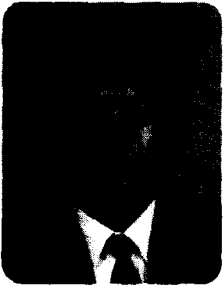


구상나무

- ▶ 과명 : 소나무과
- ▶ 학명 : *Abies koreana*
- ▶ 영명 : Korean Fir
- ▶ 한명 : 濟州白檜
- ▶ 일명 : さいしうもみ, ちょうせんしらべ



최명섭 임업연구원

목가적(牧歌的)인 생활을 꿈꾸는 서구 여성들은 아름다운 단독주택을 짓고 한그루의 구상나무를 심어 크리스마스 트리로 쓰는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특산인 구상나무는 영국의 식물학자 윌슨경이 한라산에서 처음 발견하여 전 세계에 알려진 나무이다. 그후 지리산, 무등산, 덕유산, 오대산 등지에서 발견되어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나무로 소개됐으나 지금은 외국에서도 많이 기르고 있다. 우리나라를 잘모르는 외국인들도 Korean Fir(한국산 구상나무)만은 잘알고 있어 이나무는 세계각국에서 명실공히 나무의 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 생태적 특성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무등산 등의 표고 500~2,000m에 자생하는 상록침엽큰키나무로 수고 18m, 수관폭 7~8m까지 자란다. 추운곳, 더운곳 어느곳이든 잘자라며 어려서는 강한 그늘을 좋아하고 자라면서는 양광을 좋아한다. 토양중 습기가 많고 비옥한 땅에서 생장이 좋다.

2. 형태적 특성

잎은 전나무와 같이 생겼으나 잎끝이 톱으로 갈라졌으



▲ 구상



▲ 구상나무

며 잎의 뒷면은 순백색의 기공조선이 발달하여 하얀색을 띤다. 꽃은 5~6월에 빨강, 노랑, 분홍, 자주 등 다양한 색으로 생장점에 크기 1~2cm로 피며 열매는 8~9월에 갓 가지색의 솔방울을 만든다.

유사종으로 솔방울의 색이 푸른것을 푸른구상(for. chlorocarpa), 검은것을 검은구상(for. nigrocarpa), 붉은빛이 도는것을 붉은구상(for. rubrocarpa)이라하여 구분한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이 나무는 잎과 수형이 아름답고 5~6월에 피는 암꽃이 아름답다. 추위와 공해에 강해 진딧물만 잘 구제해 주면 도시의 정원에서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외국인들에게 자랑할 대표적인 수종중의 하나로 식재할만하다. 수형이 단정하여 크

리스마스 트리로 식재하여도 좋고 잔디밭 광장에 몇본씩 군식하여 아름다움을 즐길만하다. 소나무속의 나무들이 그 빛이나 자람이 여성같이 단정하게 아름답다면 전나무나 구상나무는 하늘을 향해 자라는 기상이 남성 같고 그 푸르름이 심심하여 선현들은 「남성의 나무」로 부르며 아꼈다.

4. 번식법

번식은 주로 파종에 의한다.

○ 파종

9월에 익는 종자를 채취하여 정선한 뒤 기건저장하였다가 파종 1개월전에 노천매장하였다가 봄에 파종한다. 특히 입고병에 의한 수종이므로 파종전에 토양살균을 하여 입고병을 방제하고 비음망을 설치하면 양묘는 그다지 어렵지않다.

최근들어 구상나무가 관상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재평가되자 전국 각지에서 다투어 생산. 앞으로 묘목처리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과잉공급이 되면 그 가치가 떨어지게된다. 지금은 양묘 기술의 발달로 많은 묘목이 생산되고 있다.

5. 그 밖의 용도

조경수로 식재하여 감사하는것도 좋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로 분식하여 실내에 장식하여도 좋다. **조경수**

